

제159호(2017. 12. 20.)

한·중, 한·베트남 FTA 발효 3년, 농축산물 교역 동향

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



목 차
contents

- 1. 한·중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
- 2. 한·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8
- 3. 요약 및 시사점 15

감 수	구자춘 부연구위원	061-820-2023	selenium78@krei.re.kr
내용 문의	지성태 부연구위원	042-825-9551	dongsimjst@krei.re.kr
자료 문의	성진석 선임전문원	061-820-2212	jssaint@krei.re.kr

- 「KREI 농정포커스」는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www.kre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KREI 농정포커스 제159호

한 중, 한·베트남 FTA 발효 3년, 농축산물 교역 동향

등 록 | 제6-0007호(1979. 5. 25.)

발 행 | 2017. 12.

발행인 | 김창길

발행처 |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우)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

대표전화 1833-5500

인쇄처 | (주)한디자인코퍼레이션

ISBN | 979-11-6149-066-3 93520
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
-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
- 한·중 FTA 이행 3년차('17)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.8% 감소했고, 對중국 수출액도 1.2% 감소
 - 2017년 1~10월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곡물과 임산물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.8% 감소한 36.2억 달러
 - 對중국 수출액은 가공식품, 축산물,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.2% 감소한 8.8억 달러
 - 그런 가운데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2.0%이고,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3.8%로 전년 대비 각각 9.1%p와 14.2%p의 큰 상승폭을 보임.

- 2017년 사드(THAAD) 갈등으로 중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FTA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남.
 -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상품 다각화 필요
 - 한편, 양국의 관계 개선에 따른 교역 정상화 및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에 대응해야 함.

- 한·베트남 FTA 이행 3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.5% 증가했고, 對베트남 수출액도 11.0% 증가
 - 2017년 1~10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모든 부류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.5% 증가한 9.8억 달러
 - 對베트남 수출액은 곡물, 축산물,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일·채소, 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.0% 증가한 3.1억 달러
 -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9.2%이고,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1.0%로 전년 대비 각각 2.9%p와 0.7%p 상승함.

-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채소·과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 - 또한,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등을 통해 베트남을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함.

01 | 한·중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¹⁾

한·중 FTA 이행 3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.8% 감소

1.1.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

□ 한·중 FTA 이행 3년차('17)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6.2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²⁾ 대비 1.8% 감소, 2년차 대비 1.5% 증가

○ 이행 3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.0%로 발효 전 평년 대비 0.6%p, 전년 대비 0.9%p 하락

-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(억 달러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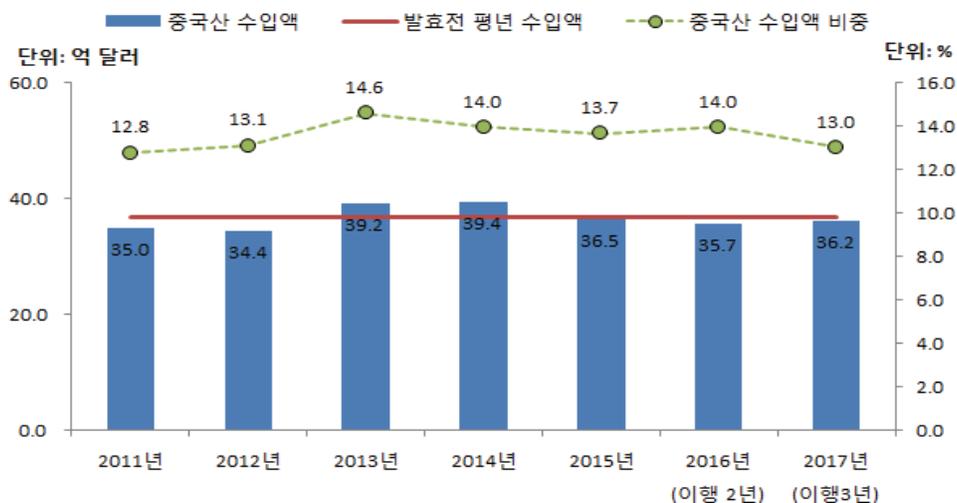
39.4('14년) → 36.5('15년) → 35.7('16년, 이행 2년) → 36.2('17년, 이행 3년)

-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비중(%):

14.0('14년) → 13.7('15년) → 14.0('16년, 이행 2년) → 13.0('17년, 이행 3년)

※ 2017년 1~10월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278.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.8% 증가

〈그림 1〉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

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1) 본 장의 농축산물(농산물, 축산물, 임산물) 교역통계는 3,068개 HSK코드를 대상으로 각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료를 집계하였음.

2) 한·중 FTA 협정에 따라 이행 1년차는 '15년 12월 20~31일, 이행 2년차는 '16년 1월 1일~12월 31일, 이행 3년차는 '17년 1월 1일~12월 31일까지임.

□ 부류별로 살펴보면, 곡물과 임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과일·채소, 가공식품, 축산물은 증가

- 곡물 수입액은 쌀, 참깨, 땅콩, 대두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9.1% 감소, 전년('16년) 대비 2.0% 감소
 - 주요 수입 감소³⁾ 품목은 쌀(Δ 1.3%), 전분박(Δ 34.1%), 참깨(Δ 23.2%), 땅콩(Δ 7.1%), 대두(Δ 50.1%) 등임.
 - 그중, 쌀과 전분박 수입액은 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수입단가가 하락하여 전년 대비 감소함.
 - ※ 쌀 수입량(천 톤): 71('14년) → 164('15년) → 137('16년) → 146('17년)
 - ※ 쌀 수입단가(\$/kg): 0.92('14년) → 0.87('15년) → 0.87('16년) → 0.79('17년)
 - ※ 전분박 수입량(천 톤): 507('14년) → 513('15년) → 628('16년) → 658('17년)
 - ※ 전분박 수입단가(\$/kg): 0.27('14년) → 0.21('15년) → 0.13('16년) → 0.14('17년)
- 과일·채소류 수입액은 기타채소, 김치, 기타과실(가공), 마늘, 양파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2.5% 증가, 전년 대비 2.9% 증가
 -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채소(54.6%), 김치(12.5%), 기타과실(가공, 10.6%), 마늘(45.6%), 양파(122.2%) 등임.
 - ※ 마늘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7.3% 감소하였지만, 동 기간 수입단가가 98.4% 상승하여 수입액이 급증
 - ※ 마늘 수입량(천 톤): 37('14년) → 36('15년) → 49('16년) → 30('17년)
 - ※ 마늘 수입단가(\$/kg): 0.68('14년) → 0.93('15년) → 1.59('16년) → 1.68('17년)
 - ※ 양파⁴⁾ 수입액은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에 따라 발효 전 평년 대비 122.2%, 전년('16년) 대비 81.9% 증가
 - ※ 양파 수입 증가는 TRQ('17년: 2만 톤) 도입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지만, 양파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수입 증가에 기인함.
 - ※ 양파 수입량(천 톤): 7.4('14년) → 75.1('15년) → 42.2('16년) → 111.4('17년)
 - ※ 양파 수입단가(\$/kg): 0.67('14년) → 0.40('15년) → 0.46('16년) → 0.32('17년)
 -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고추(Δ 9.2%), 당근(Δ 2.3%), 파(Δ 6.5%), 기타근채(Δ 0.3%) 등임.

3) 이하 감소 혹은 증가 품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기준으로 구분함.

4) 양파는 한·중 FTA 타결 결과 초민감 품목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(양허제외)됨.

- 축산물 수입액은 기타동물성유지, 닭고기, 펩톤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8.0% 증가한 반면, 전년 대비 0.6% 감소
 -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(518.5%), 닭고기⁵⁾(48.6%), 펩톤(25.4%), 조란(450.1%) 등임.
 - ※ 기타동물성유지 수입량(천 톤): 3.8('14년) → 2.8('15년) → 22.1('16년) → 24.2('17년)
 - ※ 닭고기 수입량(천 톤): 1.9('14년) → 2.5('15년) → 2.9('16년) → 3.4('17년)
 -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기타양모·섬모수(△8.9%), 기타 가금육(△2.7%), 기타양모·섬모수·조수모 등(△54%), 동물의 건과 근(△21.4%) 등임.

〈표 1〉 중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발효 전 평년 ('11 ~ '15) (A)	발효 전			발효 후 이행		증감률	
		'13	'14	'15	2년차('16) (B)	3년차('17) (C)	발효 전 대비 (C/A)	2년차 대비 (C/B)
전체 합계	3,690	3,923	3,939	3,649	3,570	3,624	-1.8	1.5
농산물	2,016	2,263	2,113	1,970	2,009	2,067	2.6	2.9
- 곡물	664	905	775	570	480	470	-29.1	-2.0
- 과일·채소	563	563	516	579	616	634	12.5	2.9
- 가공식품	790	795	822	821	913	963	21.9	5.6
축산물	154	146	162	164	167	166	8.0	-0.6
임산물	1,482	1,514	1,664	1,516	1,394	1,390	-6.2	-0.3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2)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3) 연도별 수입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치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5) 중국산 닭고기 수입은 기타조제저장(HSK: 1602329000), 밀폐용기의 것(HSK: 1602321090) 등의 형태로 주로 수입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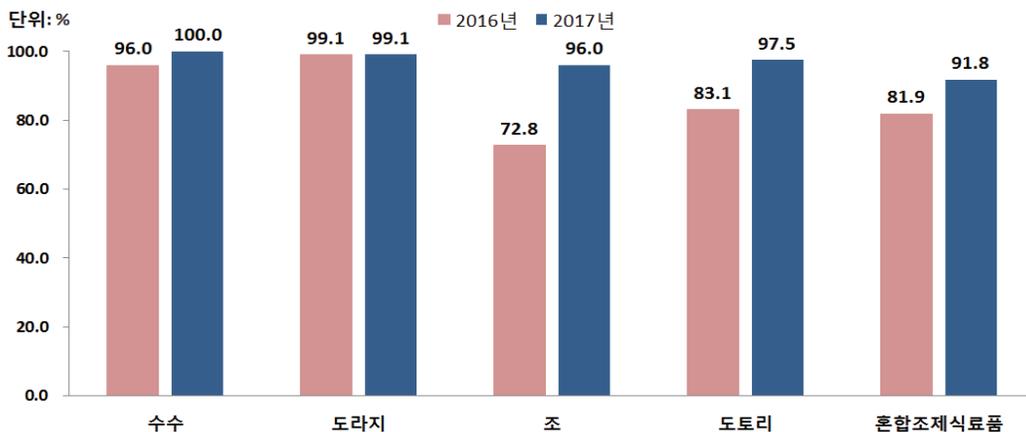
한·중 FTA 이행 3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9.1%p 상승한 72.0%

1.2.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⁶⁾

□ 한·중 FTA 이행 3년차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2.0%로 이행 2년차 (62.9%) 대비 9.1%p 상승

- '17년 중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⁷⁾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12.2억 달러이며, 그 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8.8억 달러임.
-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% 이상인 품목은 옥수수(100.0%), 수수(100.0%), 땅콩(99.9%), 도라지(99.1%), 도토리(97.5%), 조(96.0%), 커피(95.6%) 혼합조제식료품(91.8%) 등임.
- 그중에서 조, 도토리,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2년차 대비 각각 23.3%p, 14.3%p, 9.9%p 상승

〈그림 2〉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



주: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.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6)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'FTA 대상품목'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한 금액을 의미함.

7) '17년 對중국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입액 자료는 '17년 1~11월까지임.

한중 FTA 이행 3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.2% 감소

1.3.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

□ 한·중 FTA 이행 3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8.8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.2%, 2년차 대비 3.1% 감소

○ 이행 3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對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년 대비 2.4%p, 전년 대비('16년) 1.5%p 하락

- 對중국 수출액(억 달러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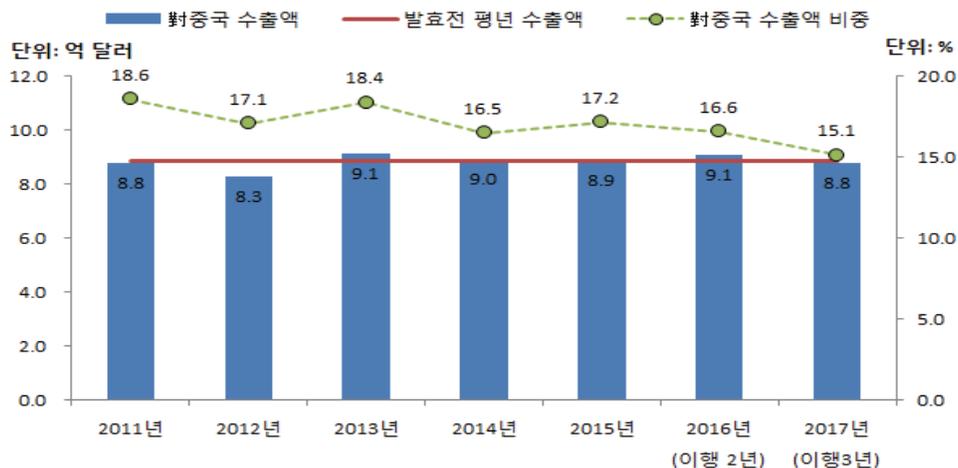
9.0('14년) → 8.9('15년) → 9.1('16년, 이행 2년) → 8.8('17년, 이행 3년)

- 對중국 수출액 비중(%):

16.5('14년) → 17.2('15년) → 16.6('16년, 이행 2년) → 15.1('17년, 이행 3년)

※ 2017년 1~10월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58.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.5% 증가

〈그림 3〉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

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□ 부류별로 살펴보면, 가공식품, 축산물, 임산물 수출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곡물과 과일·채소의 수출은 증가

○ 가공식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 품목인 자당, 홍삼, 비스킷, 커피조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0.8% 감소

-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자당(△26%), 홍삼(△16.8%), 비스킷(△35.1%), 커피조제품(△60.5%), 기타베이커리제품(△68.7%) 등임.

-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(4.9%), 라면(184.9%), 맥주(363.7%), 기타음료(16.3%), 기타소오스제품(75.5%) 등임.
- 축산물은 기타양모·조수모 등, 가죽, 축산 유아용조제식료품, 소시지 등의 수출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% 감소
 -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기타 양모·조수모 등(△25.9%), 가죽(△48.6%), 축산 유아용조제식료품(△8.4%), 소시지(△62.4%), 연유(△78.2%) 등임.
 -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조제분유(9.1%), 소원피(117%), 생우유(53.6%), 치즈(346.7%), 기타 축산조제품(2598.4%), 돼지고기(15.9%) 등임.
- 곡물의 수출액은 대두박, 밀, 감자, 땅콩, 기타곡물 등의 수출 증가로 인하여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75.8%, 전년 대비 37.4% 증가
 -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대두박, 밀(12.8%), 감자(735.5%), 땅콩(1,133.8%), 기타곡물(832.6%) 등임.
 - ※ 대두박(HSK: 2304000000)은 '15년까지 對중국 수출실적이 없으며, '16년 5십만 달러(1천 톤)를 수출하였고, '17년 수출액은 4.7백만 달러(8천 톤)로 전체 곡물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
- 과일·채소의 경우 과실혼합물, 기타과실, 채소종자, 기타화초, 기타감귤류 등의 수출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42.4% 증가
 -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과실혼합물(1,211.4%), 기타과실(208.7%), 채소종자(43.3%), 기타화초(369%), 기타감귤류(57.6%), 김치(941.6%) 등임.
 -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단일과실조제품(△29%), 유자(△22.3%), 토마토(△0.7%), 난초(△89.4%) 등임.

〈표 2〉 對중국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발효 전 평년 ('11~'15) (A)	발효 전			발효 후 이행		증감률	
		'13	'14	'15	2년차('16) (B)	3년차('17) (C)	발효 전 대비 (C/A)	2년차 대비 (C/B)
전체 합계	889	913	896	891	907	879	-1.2	-3.1
농산물	660	676	662	642	675	677	2.5	0.3
- 곡물	3	2	4	5	6	9	175.8	37.4
- 과일·채소	55	57	62	85	108	79	42.4	-27.5
- 가공식품	594	617	596	552	560	589	-0.8	5.2
축산물	124	121	139	162	150	111	-11.0	-26.1
임산물	97	115	95	88	83	92	-5.2	10.9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2)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3) 연도별 수출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치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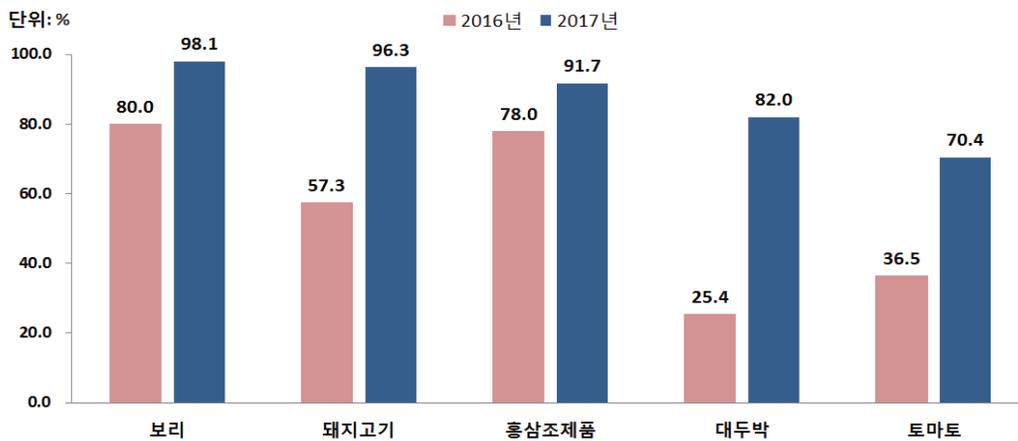
한·중 FTA 이행 3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
전년 대비 14.2%p 상승한 43.8%

1.4.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⁸⁾

□ 한·중 FTA 이행 3년차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3.8%로 이행 2년차 (29.6%) 대비 큰 폭(14.2%p)으로 상승

- '17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⁹⁾은 8.8억 달러이며,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3.8억 달러
 - 수출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70% 이상인 품목은 보리(98.1%), 돼지고기(96.3%), 홍삼조제품(91.7%), 대두박(82.0%), 오미자(78.3%), 토마토(70.4%) 등임.
 - 그중에서 대두박, 돼지고기, 토마토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2년차 대비 각각 56.6%p, 39%p, 33.9%p 큰 폭으로 상승

〈그림 4〉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



주: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.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
8)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'FTA 대상품목' 중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한 금액을 의미함.

9) '17년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출액 자료는 '17년 1~11월까지임.

02 | 한·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¹⁰⁾

한·베트남 FTA 이행 3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
발효 전 평년 대비 55.5% 증가

2.1.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

□ 한·베트남 FTA 이행 3년차('17)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.8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¹¹⁾ 대비 55.5%, 2년차 대비 23.9% 증가

○ 이행 3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.5%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.2%p, 전년 대비 0.4%p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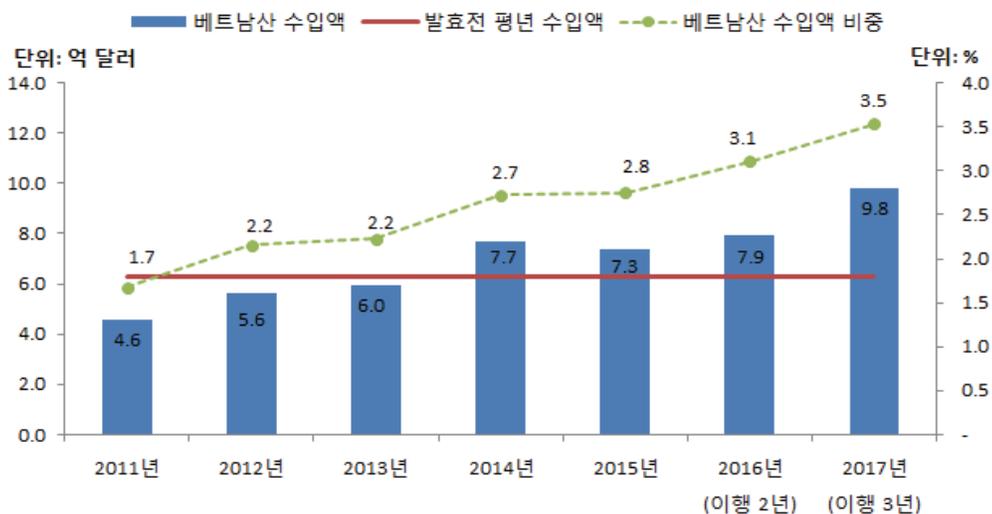
-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(억 달러):

7.7('14년) → 7.3('15년) → 7.9('16년, 이행 2년) → 9.8('17년, 이행 3년)

-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비중(%):

2.7('14년) → 2.8('15년) → 3.1('16년, 이행 2년) → 3.5('17년, 이행 3년)

〈그림 5〉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

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10) 본 장의 농축산물(농산물, 축산물, 임산물) 교역통계는 3,068개 HSK코드를 대상으로 각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료를 집계 하였음.

11) 한·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이행 1년차는 '15년 12월 20~31일, 이행 2년차는 '16년 1월 1일~12월 31일, 이행 3년차는 '17년 1월 1일~12월 31일까지임.

□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베트남산 모든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 증가

- 곡물 수입액은 쌀, 밀, 완두, 감자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9.6%, 전년('16년) 대비 71.4% 증가
 - 주요 수입 증가¹²⁾ 품목은 쌀(131.4%), 밀(74.7%), 식물성유박(1,880.6%), 완두(373.2%), 감자(1,524.7%) 등임.
 - 베트남산 곡물의 경우, FTA 발효 전 수입이 없었거나 극히 소량에서 FTA 발효 후 수입이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.
 - ※ 쌀 수입량(천 톤): 47.7('14년) → 35.0('15년) → 10.0('16년) → 48.1('17년)
 - ※ 식물성유박 수입량(천 톤): 0.6('14년) → 5.4('15년) → 18.6('16년) → 18.8('17년)
 - ※ 감자 수입량(천 톤): 0.01('14년) → 0.04('15년) → 0.2('16년) → 0.4('17년)

- 과일·채소류 수입액은 고추, 오이 등 채소와 바나나, 망고, 파인애플 등 과실 및 기타 가공 과실, 그리고 견과까지 대부분 품목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66.8%, 전년 대비 8.8% 증가
 -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과실(가공, 187.4%), 캐슈넛(가공, 1,638.0%), 기타감귤류(가공, 66,864.1%), 오이(168.6%), 고추(74.7%), 당근(152.1%), 기타채소(122.9%) 등임.
 - ※ 캐슈넛(가공) 수입량은 전년 대비 41.5% 감소(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06.1% 증가)하였으나,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7.8% 증가(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,638%) 증가
 - ※ 캐슈넛(가공) 수입량(톤): 281.4('14년) → 280.3('15년) → 1,179.8('16년) → 690.1('17년)
 - ※ 캐슈넛(가공) 수입단가(\$/kg): 5.8('14년) → 9.3('15년) → 11.2('16년) → 39.6('17년)
 - ※ 기타감귤류(가공) FTA 발효 이후 단가 하락으로 수입량 및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
 - ※ 기타감귤류(가공) 수입량(천 톤): 0.0004('14년) → 0.007('15년) → 0.9('16년) → 3.3('17년)
 - ※ 기타감귤류(가공) 수입단가(\$/kg): 8.8('14년) → 3.1('15년) → 1.6('16년) → 1.3('17년)
 - FTA 발효 이전 거의 수입되지 않았던 베트남산 신선(바나나, 파인애플 등) 및 가공(레몬, 자몽 등) 과일의 수입량이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
 - ※ 바나나 수입량(톤): 124.1('14년) → 179.1('15년) → 839.8('16년) → 3,797.5('17년)
 - ※ 파인애플 수입량(톤): 0.0('14년) → 0.1('15년) → 7.6('16년) → 15.4('17년)
 - ※ 레몬(가공) 수입량(톤): 0.9('14년) → 144.0('15년) → 45.1('16년) → 714.1('17년)
 - ※ 자몽(가공) 수입량(톤): 0.0('14년) → 28.8('15년) → 603.9('16년) → 526.2('17년)

12) 이하 감소 혹은 증가 품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기준으로 구분함.

- 축산물 수입액은 수입액 비중이 가장 큰 기타양모, 조수모 등의 수입량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2.6%, 전년 대비 47.8% 증가
 - 축산물 수입액에서 기타양모, 조수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70.3%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.
 - ※ 기타양모, 조수모 등 수입비중(%): 55.3('14년) → 60.1('15년) → 65.1('16년) → 70.3('17년)
 -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양모, 조수모 등(191.6%), 우지¹³⁾(239.4%), 육류 스프(59.0%), 젤라틴(1891.7%) 등임.
 - ※ 기타양모, 조수모 등 수입량(톤): 166.6('14년) → 245.0('15년) → 260.1('16년) → 300.2('17년)
 - ※ 우지 수입량(천 톤): 0.0('14년) → 1.7('15년) → 5.6('16년) → 4.5('17년)
 -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(△10.2%), 소원피(△42.4) 등임.
 - ※ 기타동물성유지 수입량(천 톤): 2.9('14년) → 3.1('15년) → 2.1('16년) → 1.5('17년)
 - ※ 소원피 수입량(천 톤): 2.3('14년) → 5.1('15년) → 0.6('16년) → 1.2('17년)

〈표 3〉 베트남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발효 전 평년 ('11~'15) (A)	발효 전			발효 후 이행		증감률	
		'13	'14	'15	2년차('16) (B)	3년차('17) (C)	발효 전 대비 (C/A)	2년차 대비 (C/B)
전체 합계	632	597	770	735	794	983	55.5	23.9
농산물	345	332	395	332	329	437	26.6	32.8
- 곡물	48	50	76	35	33	57	19.6	71.4
- 과일·채소	52	45	76	97	127	138	166.8	8.8
- 가공식품	240	237	243	200	168	242	0.6	43.4
축산물	9	9	12	18	16	24	152.6	47.8
임산물	268	255	362	386	448	522	94.8	16.4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2)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3) 연도별 수입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치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13) 우지는 2015년 이후 수입되어, 평년 대비가 아닌 2015년 대비 증가율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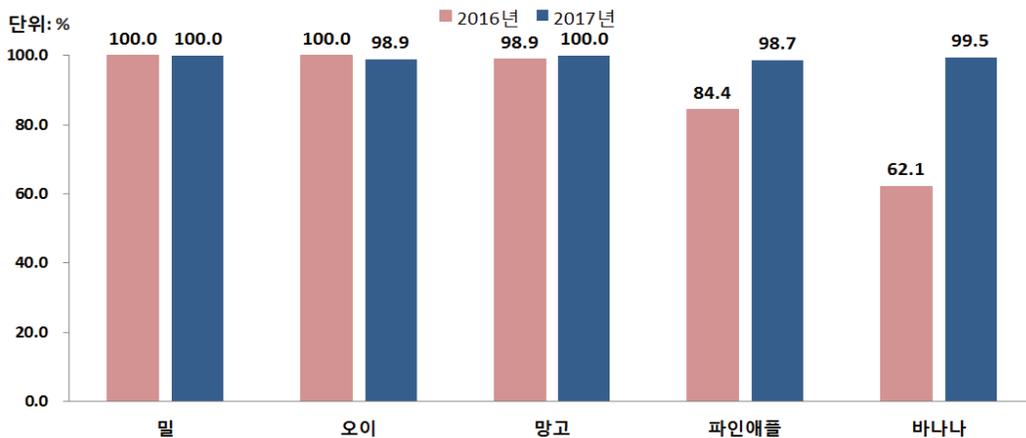
이행 3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9.2%,
주요 열대과일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

2.2.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

□ 이행 3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9.2%로 이행 2년차(86.3%) 대비 2.9%p 상승

- '17년 베트남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¹⁴⁾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6.2억 달러이며, 그 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5.5억 달러임.
-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% 이상인 품목은 밀(100.0%), 망고(100.0%), 바나나(99.5%), 캐슈넛(99.2%), 커피(99.1%), 오이(98.9%), 코코넛(96.4%), 당근(95.1%) 등임.
- 베트남산 주요 열대과일(바나나, 파인애플, 망고 등)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2년차 대비 상승하였으며, 특히 바나나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37.4%p 큰 폭으로 상승

〈그림 6〉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



주: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.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14) '17년 對베트남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활용한 수입액 자료는 '17년 1~11월까지임.

한·베트남 FTA 이행 3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1.0% 증가

2.3.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

□ 한·베트남 FTA 이행 3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3.1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.0% 증가, 2년차 대비 5.6% 감소

○ 이행 3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對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년 대비 0.3%p, 전년 대비('16년) 0.6%p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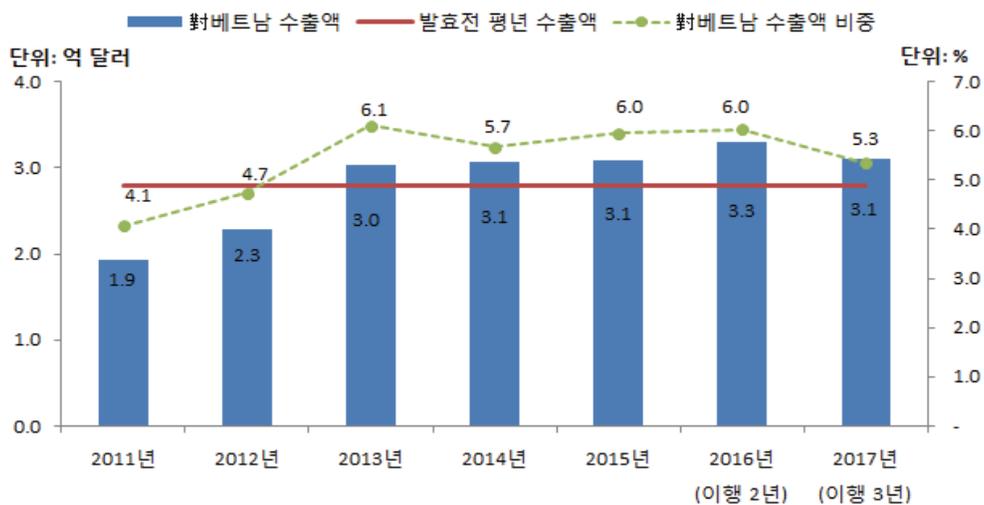
- 對베트남 수출액(억 달러):

3.1('14년) → 3.1('15년) → 3.3('16년, 이행 2년) → 3.1('17년, 이행 3년)

- 對베트남 수출액 비중(%):

5.7('14년) → 6.0('15년) → 6.0('16년, 이행 2년) → 5.3('17년, 이행 3년)

〈그림 7〉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

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□ 부류별로 살펴보면, 곡물, 축산물,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과일·채소와 가공식품의 수출은 증가

○ 가공식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 품목인 궤련, 혼합조제식료품, 기타음료, 기타사료용조제품, 라면, 과당, 홍삼조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72.7% 증가

-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궤련(59.6%), 혼합조제식료품(61.8%), 기타음료(733.1%), 기타사료용조제품(38.3%), 라면(332.0%), 과당(14.0%), 홍삼조제품(106.1%) 등임.

-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커피조제품(△7.7%), 기타베이커리제품(△41.0%), 쇼트닝(△7.8%), 자당(△56.3%) 등임.
- 과일·채소 수출액은 단일과실조제품, 배, 포도, 딸기, 채소종자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43.7% 증가
 -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단일과실조제품(815.2%), 배(2,267.5%), 포도(1,597.7%), 딸기(11,928.3%), 채소종자((96.0%) 등임.
- 곡물 수출액은 FTA 발효 이전 수출이 거의 없었던 전분박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대두박, 옥수수전분, 밀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7.9% 감소
 -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대두박(△58.6%), 옥수수전분(△39.4%) 등임.
 - 전분박의 경우, 이행 2년차(262톤) 처음 수출이 시작되었고 이행 3년차 수출량은 3,897톤으로 크게 증가
- 축산물은 가죽, 기타양모·조수모 등, 젤라틴 등의 수출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42.7% 감소
 -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가죽(△32.2%), 기타 양모·조수모 등(△14.9%), 젤라틴(△28.2%) 등임.
 - 축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분유의 경우,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은 증가
 - ※ 조제분유 수출량(톤): 488.6('14년) → 739.4('15년) → 391.9('16년) → 387.0('17년)
 - ※ 조제분유 수출단가(\$/kg): 10.9('14년) → 13.8('15년) → 15.6('16년) → 16.8('17년)

〈표 4〉 對베트남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발효 전 평년 (11~'15) (A)	발효 전			발효 후 이행		증감률	
		'13	'14	'15	2년차('16) (B)	3년차('17) (C)	발효 전 대비 (C/A)	2년차 대비 (C/B)
전체 합계	280	303	307	309	329	311	11.0	-5.6
농산물	142	140	156	197	219	249	75.4	14.0
- 곡물	6	4	7	10	11	5	-17.9	-55.1
- 과일·채소	6	6	7	7	11	19	243.7	68.4
- 가공식품	130	131	142	180	196	225	72.7	14.7
축산물	49	50	56	66	58	28	-42.7	-51.4
임산물	69	112	95	45	53	34	-50.9	-36.7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2)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3) 연도별 수출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치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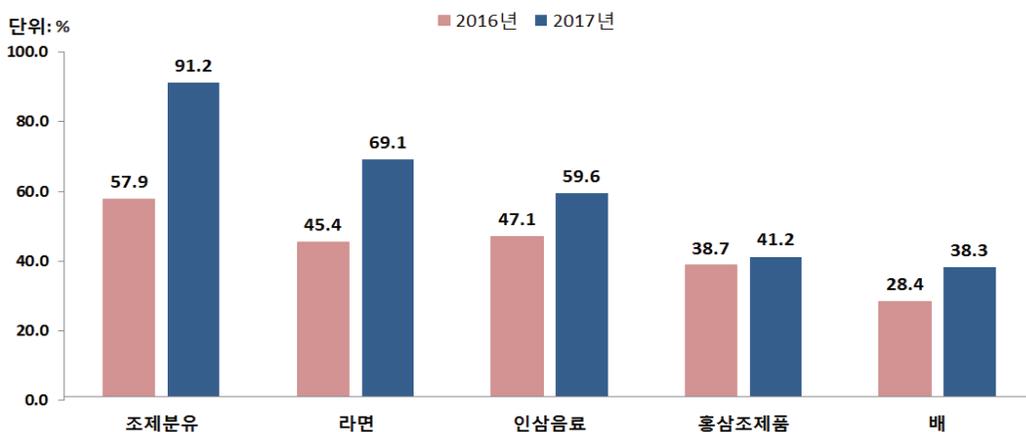
이행 3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1.0%,
주요 국산 가공식품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

2.4.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

□ 이행 3년차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31.0%로 이행 2년차(30.3%) 대비 소폭(0.7%p) 상승

- '17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¹⁵⁾은 3.1억 달러이며,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1.0억 달러임.
- 수출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% 이상인 품목은 전분박(100.0%), 대두박(96.0%), 조제분유(91.2%) 등임.
- 주요 국산 가공식품(라면, 조제분유, 홍삼조제품, 인삼음료 등)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2년차 대비 상승하였으며, 특히 조제분유와 라면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각각 33.3%p, 23.7%p 큰 폭으로 상승

〈그림 8〉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



주: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.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15) '17년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활용한 수출액 자료는 '17년 1~11월까지임.

03 | 요약 및 시사점

-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교역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사드(THAAD) 갈등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여전히 정체됨. 특히,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.
 - 2017년 1~10월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.8% 증가한 데 반해, 동 기간 중국산 수입액은 1.5% 증가하는 데 그침.
 -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.5% 증가하였으나, 동 기간 對중국 수출액은 오히려 3.1% 감소함.
- 한·중 FTA 이행 3년차임에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,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크게 제고됨.
 - 이행 3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2.0%로 전년 대비 9.1%p 상승하였고,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3.8%로 전년 대비 14.2%p 상승함.
- 중국과의 사드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 외적인 요인이 우리 농축산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상품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.
 - 중국이 일본에 이은 2대 농축산물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농축산물 수출시장의 약 15%를 차지하는 상황에서, 앞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 등의 신흥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함.
- 한·베트남 FTA 이행 3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기여함.
 - 2017년 1~10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.9% 증가함으로써 FTA 발효 이후 그 증가세를 이어감.
 - 특히, 오이, 고추, 당근 등 채소와 바나나, 파인애플 등 신선과일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.
- 한편, 한·베트남 FTA 발효 이전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, 발효 이후 오히려 정체국면에 있음.
 - 2017년 1~10월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.6% 감소하였고,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31.0%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.
-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채소·과일 등 민감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등의 국내보완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 - 또한,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하여 베트남을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함.

^ KREI 농정포커스 v

2017년

- 제159호 한·중, 한·베트남 FTA 발효 3년, 농축산물 교역 동향(지성태, 남경수, 염정완, 김만이)
-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(하장)
-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(우병준, 임소영, 이두영, 이형용, 한보현)
-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(김성우, 최선우, 임효빈, 한은수, 신성철, 김창수, 노호영, 김원태)
-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(성재훈, 이해진, 정학균)
-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(김태훈, 박동규, 김종진, 김종인, 윤종열, 조남욱, 채주호)
-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 출하 및 가격 전망(박미성, 노호영, 이형우, 김종인, 이상민, 황의식)
- 제151호 최근 귀농·귀촌 실태와 시사점(김정섭, 이정혜)
- 제150호 한·EU FTA 발효 6년,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(송우진, 이현근, 남경수, 김만이, 명수환)
-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(이형우, 김진년, 서홍석, 김충현)
-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(마상진, 엄진영, 김경인)
- 제147호 한·아세안 FTA 발효 10년,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(지성태, 이수환, 유정호, 유주영)
-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(정호근, 안현진, 이상민)
-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(이명기, 송미령, 유찬희, 국승용, 김정섭, 김홍상, 박준기 등)
- 제144호 한·미 FTA 발효 5년,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(지성태, 이수환, 박수연, 정민국)
-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(지인배, 김현중, 김원태, 서강철)
-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(김병률, 이용선, 김연중 등)
-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(이형우, 정세미, 지선우, 김형진, 한봉희)

2016년

- 제140호 2016년 한·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(송우진, 이현근, 유정호, 한석호)
- 제139호 농업·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138호 2016년 한·중, 한·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(지성태, 이수환, 염정완, 한석호)
-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(박미성, 윤선희, 김라이)
-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(김태훈, 조남욱, 김종인, 우병준)
-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(김성우, 송성환, 노호영, 임효빈, 최선우, 한은수, 이형용, 노수정)
-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(박미성, 신성철)
-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·출하 및 가격 전망
(박미성, 이상민, 성명환, 우병준, 김태훈, 김성우, 장철수, 송미령)
-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(김미복, 오내원, 황의식)
-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(정학균, 이해진, 김창길)
-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(김현중, 국승용)
-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(이용선, 이형우, 이미숙)
- 제128호 브렉시트(Brexit)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(한석호, 서홍석, 지성태, 이상현, 염정완, 정호연)
- 제127호 한·EU FTA 발효 5년,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(한석호, 남경수, 정호연)
-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(국승용, 최지현)